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정부-한은, 중소기업 수출입금융에 160억 달러를 지원

- 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는 11월 17일부터 수출입금융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16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, 공급된 외화유동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.
-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에 신규 외화유동성을 100억 달러 공급할 예정이며, 기간은 6개월 만기 대출임.
 -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는 은행에게 수출환어음 규모에 해당하는 외화를 대출하는 방식임.
- 한편, 기획재정부에서도 중소기업·대기업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원자재수입을 위한 수입금융(수입유산스)을 지원한다고 전함.
 - 공급방식에 있어서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의 수출환어음할인 및 원자재 수입유산스 인수 업무를 지원하는 것임.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지원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공급된 외화유동성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함.
 - 공급된 외화유동성의 사용 용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은행들의 매입외환·유산스 등의 월평잔이 전월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무역금융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임.

(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외화유동성 공급 방안,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, 한국은행 국제국 금융위·금감원, 11/13)